“담합 반복하면 퇴출”…등록 허가 취소·영업정지

짬짜미 의혹 정유·주유업계에 공정위, 적용 여부 ‘만지작’

임원 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 도입…손해배상제도 개편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런 계획이 담긴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개별법에 따라 등록·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공인중개사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답합이 발생하는 주요 업종에서 문제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담합으로 9년 이내에 2차례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사업자의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법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담합을 반복(예 5년간 2차례)하면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요청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해당 사업에 관해 규정한 개별법에 ‘공정위가 영업정지·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런 퇴출·사업 제한 규정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판매업의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지자체장 혹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담합에 관여한 임원을 해임하거나 직무정지 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는 임원해임·직무정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해 담합을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임원해임·직무정지명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과 같은 국내법이나 영국·미국·호주 등 외국 경쟁법에 도입돼 있는데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합이 반복되는 사업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해소할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쉽도록 소송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위반행위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한 현행 단체소송 제도를 담합 등 주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담합에 맞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입증하고 손해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제출하도록 제도화한다.

담합 사업자의 입찰 기회를 더 줄인다.

현재는 입찰 담합을 했을 때만 조달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만, 가격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비(非)입찰 방식의 담합을 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면 공정위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조달청에 반드시 요청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두 차례 담합하더라도 시정명령만 받아서 벌점이 5점 미만이면 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아니지만 더 엄격하게 제도를 바꾼다.

현재 담합 주도자 1년, 단순 가담자 6개월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늘린다.

담합 제재도 강화한다.

10년 내에 담합을 반복하면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 동안의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리니언시)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담합을 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의 기간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경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의 재담합에도 리니언시를 축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담합으로 제재받고 7년이 지나서 다시 담합한 경우 자진신고 1순위는 과징금 면제, 2순위는 과징금 50% 감경을 적용하지만, 제도를 개편하면 1순위는 50%, 2순위는 25% 감경 처분한다.

이밖에 담합 기업은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일정 기간 가격 변동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명령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반복적 담합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TF에서는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함께 보고됐다. 연합뉴스

한전, 에너지 보안 역량 세계에 알린다

나토 국제 사이버보안 훈련 6년 연속 참가

기술·정책 종합 평가…안보 대응력 고도화

한국전력공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보안 합동훈련에 6년 연속 참가하며 에너지 인프라 보호 역량 강화에 나선다.

전력망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24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Locked Shields 2026’에 대한민국·헝가리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고 23일 밝혔다. 훈련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진행된다.

Locked Shields는 2010년 시작된 이후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협력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대표 훈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39개국에서 약 4000명의 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글로벌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대한민국은 한전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47개 기관 170명으로 구성된 훈련팀을 꾸려 참여한다. 지난 2021년 이후 6년 연속 참가하며 국제 사이버 방어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훈련은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뉘어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방식으로 진행된다. 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공격을 주도하고, 39개국으로 구성된 16개 팀이 방어 임무를 맡아 대응 역량을 겨룬다.

한국전력은 24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가 주관하는 국제 사이버보안 합동훈련 ‘Locked Shields 2026’에 대한민국·헝가리 연합훈련팀의 일원으로 참가한다. 사진제공=한국전력

평가는 단순 기술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사이버 위기 상황에서의 보고체계, 언론 대응, 법률 전략 등 정책적 대응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국가 기반시설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전면 대응 훈련’ 성격이 강하다.

한전은 자체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입상자를 중심으로 선발된 정보보안 전문 인력을 투입해 방어팀 핵심 역할을 맡는다. 에너지 인프라 등 가상 시스템에 대한 공격팀의 침투 시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며 전력망 보호 역량을 점검한다.

한전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해외 선진국의 침해 대응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 인프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며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보안 체계 구축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식품 규제 손질…KREI 식량안보 해법 찾는다

오늘 ‘규제 합리화’ 정책토론회…법·제도 개선 방향 논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식품 분야 규제 개편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발맞춰 농식품 분야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사는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농식품 규제 합리화와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3건의 발표로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식품 규제 합리화 지원 성과와 과제(최용호 KREI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과 법·제도 개선 과제(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대석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학계·연구기관·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토론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규제 개선과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식품 규제 합리화는 농업 현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 핵심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KT 노사, 국가유공 장애인들과 ‘금성산 나눔의 숲 오감체험’

KT·KT노사·광주보훈청 협업

KT서부고객본부와 KT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 장애인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국립나주숲체원에서 ‘금성산 나눔의 숲 오감체험’ 숲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 장애인과 보훈가족 등 40여명과 KT 사랑의봉사단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국립나주숲체원의 산림치유 전문 프로그램과 연계해 마실숲 산책, 오감 체험 숲 프로그램, 힐링 체험, 점심식사 등으로 구성된 숲 힐링 일정을 소화했다.

23일 KT서부고객본부와 KT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는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 장애인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 국립나주숲체원에서 ‘금성산 나눔의 숲 오감체험’ 숲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KT 사랑의봉사단은 국가유공 장애인들의 이동 보조와 프로그램 참여 보조 등 행사 전 과정에 동행하며, 참가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숲 체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국가유공 장애인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숲 나들이가 쉽지 않았는데, 자연 속에서 걷고 쉬며 오랜만에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다”라며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해 줘서 고맙고 오래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남권 KT노동조합 호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 장애인분들께 작은 위로와 응원의 시간을 전하고자 했다”며 “KT 노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T서부고객본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취약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봄나들이 및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환경 조성과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삼성전자, 무더위 대비 에어컨 설치 전담팀 가동

전담팀 대상 설치 품질 향상 위한 전문교육도 진행

삼성전자가 이른 무더위에 대비해 오는 8월까지 삼성전자로지텍과 함께 에어컨 설치 전담팀 4800명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더위의 시작이 빨라지고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설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까지 설치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높여 고객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설치 품질 향상을 위해 전담팀을 대상으로 에어컨 주요 기능 설정, 스마트싱스 연동 실습, 와이파이·공유기 연결 등 모바일 기기 설정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고객들이 에어컨을 최적의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점검·케어, 전문 세척, 무상수리서비스, 재설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 구독클럽’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삼성 인테리어핏 키트’를 통해 구축 아파트나 주택에서 천장 단내림 공사 없이 시스템에어컨을 단 하루 만에 시공이 가능한 제품도 출시 중이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전담팀이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로지텍 관계자는 “이른 무더위로 증가하는 설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강화했다”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불편 없이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업그레이드된 AI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 맞춤형 냉방을 제공하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프로’와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프로 벽걸이’를 지난 2월 출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